


공동체 소식



**연중 제22주일**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8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9월 신심미사 안내.

- 예수성심신심 : 9/2(금) 오전 10:00, 미사 30분 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 있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 이번 달 성모신심 미사는 쉽니다.

평협회 회합

- 일시 : 8/28(주일) 교중미사 후.

총구역회 회합


- 일시 : 9/4(주일) 교중미사 후.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본당에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말씀**

노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삶에는  
즐거움이 없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9	512	174	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정수한 베드로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차주	김대연 요셉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주	김명은, 한춘희, 장보혜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8/21	85명	354불	1,800불
정수한, 김화년, 박희영, 김정원, 이영민 (총 5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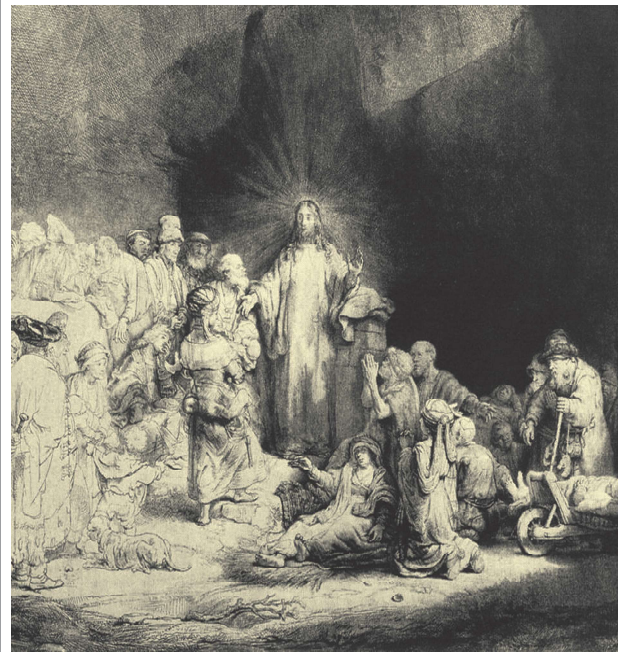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회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ch01yim@hanmail.net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을 새 계약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를 고르지 말고 끝자리에 앉고, 잔치를 베풀 때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이를 초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주님의 밥상에 앉은 우리가 모두 한 형제임을 깨달읍시다.

### 성화해설

#### 예수에게 병자와 어린이를 데리고 오다 (렘브란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치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루카 14,13) 믿음의 문에 이미 들어선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고 (로마 14,17 참조)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돕고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생명의 연대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17-18.20.28-29

<너를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화답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마련하셨나이다.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8-19.22-24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7-14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쉐 마

## 낮출수록 높아진다



로마 그리스 시대 학교에서는 설득의 기술인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높일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설득력을 지니려면 자기 말에 합당한 자격을 지녀야 하는데, 수사학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자격을 적절히 자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오로도 이러한 기교를 사용하곤 합니다(필립 3,4-6).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수사학과는 정반대로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고 낮추라고 권고합니다.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복음을 선포하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1코린 1,18).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면, 복음의 설득력은 자신을 높이는 데서 오지 않고, 낮추는 데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필리 3,7-11; 1코린 12,1-5).

그런데 여전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독서와 복음이 자신을 낮추고 죽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결국 자신을 높이고 살려내기 위함입니다(집회 3,18; 루카 14,10-11.14). 이렇게 보면 복음은 단순히 고통을 즐기라는, 슬픔을 즐기라는 마조히스틱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 자신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다만 알려주는 길이 일반적인 길과 다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높은 자리, 높은 지위, 많은 재물을 얻는 데 행복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하느님 앞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 영원한 삶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얻고자 한다면 하느님과 이웃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이들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은 자기 뜻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이들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결코 하느님 앞에서 높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이들인지를 노래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손길을 갈망하고, 그분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이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 일부러 남 밑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도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1필리 2,6-8).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예수님께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들어 높여 주실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동생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

야곱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로 팔려가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된 것은 요셉이 꿈 때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37,1-11

야곱에게 요셉은 늦둥이 아들이었고 더구나 끔찍하게 사랑했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사랑스러웠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의식주에 관한 것을 편애하면 더 감정적으로 상처가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요셉을 멀리서 보고 나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떤 행동이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37,12-36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 간 곳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서도 손으로 꼽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셉과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의 재회와 용서 그리고 하느님의 역사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41,39-45,28

부모의 편애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가장 못마땅한 것은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제에게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귀한 존재에서 낯선 이국땅의 노예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착한 마음을 지니고, 하느님의 마음에 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특히 요셉은 분명히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묵상

## 성공한 거래와 성공한 사랑

스승님!  
성공한 거래와 성공한 사랑의 차이가 뭐니까?

성공한 거래는  
그릇이 다시 가득 차서 돌아오는 것이고  
성공한 사랑은  
그릇이 텅 비어서 돌아오는 거란다.



성공한 거래?  
성공한 사랑!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루카 14,14)